

메르스 벌써 잊었나…지카바이러스 대응 ‘허점’

귀국 일주일만에 병원 방문 불구 3일 지나서야 뒤늦게 보고
공향선 발열검사 않고 아내와 부부관계…2차 감염 대응 혼선
광양보건소 “검사 대상 아니다” 전남보건당국 “정밀검사 추진”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로 전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던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 대응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열 등 복합적인 증세로 처음 병원을 방문했지만 3일 뒤에야 보건당국에 보고 되고, 관찰 보건소 관계자는 대응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초기대응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22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남도, 광양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확

진 환자인 이모(43)씨는 발열 증세 등으로 지난 18일 광양지역 개인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두 차례 체온 측정결과 37.7도와 37.2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씨는 발열과 함께 근육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지카바이러스 유행국인 브라질에 다녀온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렸지만 감기 몸살 증세로 처방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발진이 나타나는 등 증상이 심해지자 21일 다시 해당 병원을 찾았고, 그때야 의심환자로 분류돼 광양보건소와 전남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다.



광양 40대 확진 과정

귀국 일주일만에 발열·구토 호소



18일 병원 방문·감기 몸살 처방



21일 병원 재방문·보건당국 보고

최초 증상이 나타나고 3일이 지난 뒤에야 의심환자로 분류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지침’에는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 방문 후 2주 이내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임상증상이

동반되면 보건당국에 의심환자로 신고하게 돼 있다.

이씨의 경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출장을 다녀온 이후 1주일 만에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양보건소 관계자는 “의사의 권한”이라고 밝힌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가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지침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보건당국은 2차 감염 우려자에 대한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도 혼선을 빚었다.

현재 지카바이러스는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등 매개모기와 수혈 외에도 성관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임상증상이

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양보건소 관계자는 “(이씨의 아내) 매뉴얼 상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전남보건당국은 “정밀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지침에는 확진 판정시 성접촉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PCR)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이씨는 유행국가로 분류된 브라질에 다녀오고도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공항 게이트에서 1차 발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유행국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일일이 체온을 체크하지만 이씨가 독일을 경유해 입국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첫 확진자 나온 광양 비상

브라질 간 건설사·협력업체 근로자 상당수 6월 일시 귀국

추가 감염 예방책 시급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자가 포스코 건설이 브라질에서 추진 중인 제철소 건설 현장에 다녀온 광양 거주 40대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광양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소두증(小頭症)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카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지역에서 나온 데다 그가 머물다 온 브라질 현장으로 건너간 270여명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광양을 비롯한 전남지역 거주자로 나타나면서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광양시와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세아라주 빼생 산업단지에서 건설 중인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 건설 현장에 우리 근로자 27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여기에는 포스코건설 근로자와 광양지역 전력·전기 협력업체 2곳의 근로자 1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자 이모(43)씨가 지난 2월부터 이달 9일까지 단 3주거량 해당 현장에 머물다가 모기에 물려 감염된 데다, 오는 6월 이들이 공사를 마치고 일시에 귀국한 이후 추가 확진자 내지는 감염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씨를 비롯해 브라질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최근 돌아온 광양지역 근로자들에 대해 보건당국이 증상이 확인되 드러나기 전까지 건강체크를 비롯해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브라질 제철소 건설 현장에 직원을 파견한 A업체 관계자는 “직원 20명이 현재 현장에 있으나 특히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달 퇴직을 위해 귀국한 근로자들도 그렇고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귀국 직후 건강검진을 하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B업체 관계자도 “근로자 10여명이 브라질 현장에 근무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 등 특이점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현장과 연락을 강화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공기 감염 안돼…만일의 사태 대비 역학조사·방제작업

전염 가능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가 메르스와 달리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폭넓게 역학조사와 방제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확진 환자인 이모(43)씨의 경우 현재 격리치료는 필요 없지만 국내 첫 사례인 것을 감안해 전남대병원에서 임상적 관찰과 추가적인 정밀검사,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또 이씨의 아내에 대한 역학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현재로서는 이씨 외에 추가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씨와 접촉한 이씨 아내의 감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씨가 혼자

입국을 해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카바이러스가 매개모기와 수혈, 성접촉 등으로 감염된 사례는 있지만 감염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고 매개모기 활동 기간이 아니어서 사람에서 모기로, 다시 모기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다”며 “검역과 지자체 모기 방제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강운태 전 시장 영장실질심사 이례적 단독법정서 진행

‘산악회 관광’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22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시장 측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산악회 관광 행사를 개최하면서 회비보다 많은 경비를 지출하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60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영계 비리 얼룩

임원급 10명 기소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2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및 지역수영연맹 임원급 인사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영계 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수영연맹 정보(55) 전 전무이사 등 연맹 전·현직 임원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맹 임원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는 추가 금품거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구속기소)씨도 정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전남수영연맹의 공금 6억1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수영장 공사 및 수구선수 선발 문제를 놓고 뒤통 5000여만원을 챙긴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이모씨도 구속 기소됐다.

이외 수영 경기용 기구 납품이나 수영장 시설 인건 등의 문제로 업계로부터 2000~3000여만원씩의 금품을 챙긴 대한수영연맹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모 대한수영연맹 이사(인천수영연맹 전무이사)는 수영장 시설 공인인 중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한수영연맹 생활체육이사(광주수영연맹 전무이사)는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비슷한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임 이사는 이와관련, “편의 대가로 받은 바 없으며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심서 수천만원 현금 살포 왜?



○…50대 여성이 이혼한 남편과 아들이 자신의 돈을 빼앗

으려 한다는 이유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살포.

○…22일 경찰에 따르면 A(여·56)씨가 지난 21일 오후 5시5분께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아무나 가져가라’며 현금 2200만원 상당을 공중에 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뿌릴 목적으로 며칠 전 지방에서 상경해 한 시중은행에서 4200여만원을 인출했는데, A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남편에게 돈을 뺏긴 바엔 그 돈을 다 기부하려고 했다”고 진술.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급매·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경매로 취득 (7억 3천만원, 4명 입찰)
- 융 6억 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일시를 대폭 조정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수학여행, 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3억)후 연 5억원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